

“성상품화 없는 신나는 세상을 위한
왕산여성주간” 맞이

91년 제1차 전체여학생대표자회의



안건 - 전체여학생 대표자회의 의의와 전망
- 여성주간의 의의와 목적
- 4.19를 향년 여학생은 어떻게 맞을 것인가

나라잇기 47년 4월 16일 5시 30분

하나되어 주인되는 제3대 총여학생회

전체 여학생 대표자 회의의 의의와 전망

제 3 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성상품화 없는 신나는 세상을 위한 여성주간’을 준비하면서 여학우들이 이 사업 속에서 주인으로 우뚝설 수 있는 방도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앞으로 여학생총회와 전체여학생대표자회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전체 여학생 대표자 회의 (이하 전여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여대회의의 의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1.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기층 대표자들까지의 모임 속에서 상층만의 행사가 아닌 진정으로 모든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가 수렴되고 그들이 주인으로 나설 수 있는 사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2. 전체 여학생대표자 회의는 여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라는 대중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기구(회의)를 건설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자들이 회의 속에서 의사개진, 결정, 참여권을 가지면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책임성과 결의력을 높여내어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 사업의 진행 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많은 의의성을 이번 전여대회의를 준비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점은 전여대회의가 총여학생회 의결기구로서 그 위치와 역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기되는 문제점과 함께 전망을 간략히 밝혀 보겠습니다. 앞에 제기되는 문제점은 지금 총여학생회의 현재적 수준 속에서 제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총여학생회의 운영회의가 강화되고 각 과 여학생부(회)가 튼튼히 자리잡으면 확대 운영회의가 정례화되고 자리를 잡을 것이고 이보다 더 높은 의사 결정기구로서 전여대회의가 위치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여대회의가 힘을 갖고 모든 대표자들이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다하게 되면 전체 여학생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흡하나마 이렇게 전여대회의의 의의와 전망을 밝히면서 모든 여학생 대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드리며, 앞으로 제기되는 많은 사업속에서 모든 총여학생회 간부들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여성의 상품화란 무엇인가?

— 여성주간 행사를 중심으로

여성은 사회에서 생산의 주체이기 보다는 소비, 낭비의 주체로 여겨지고 있다. 여성은 거대한 상품시장에서 소비의 주된 일을 하지만 여성 자신도 상품화되어 가고 있다. 즉 여성 자신도 상품화되어지고 있다. 즉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은 생산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의 모든 부분에 걸쳐 상품화를 진척시켰고 그 결과 인간의性と 노동도 인간이란 주체의 필요에서가 아니라 자본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면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한 것이다.

각종 선전이나 광고물은 선전하고자하는 상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여성의 육체를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자극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성은 인격적 존재로서 규정되기보다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 되어지는 것이다. 장사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어 팔려고 하는 사회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상품화와 미인대회, 그리고 가장 극단의 형태인 매매춘을 통하여 여성의 고귀한 성을 대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특수성속에서 여성의 상품화는 더욱 가속화되고있다. 해방 이래로 형성되어지는 경제의 대외의존성과 정부주도하의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정책은 결과적으로 향락산업의 번창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40-50년에 걸친 군부독재정권은 남성 중심의 폭력적인 군사문화를 음으로 양으로 배태하게 되는 것이다. 전쟁을 동반하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힘센 남성, 우월과 약한 여성 종속의 문화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 상품화 없는 신나는 세상을 위한 여성주간"의 행사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사회에서 그리고 대학 사회에서 추방 되어져야만 하는 왜곡된 여성의 상품화를 짚어 보겠다.

우선 첫째날, 여성주간 선포식과 공개토론회

날로 가일층되고 있는 사회적인 여성의 성도덕 문란과 성 상품화현상을 가장 진보적인 사회인 대학에서부터 타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상품화되고 있는 대상인 여성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 우뚝서야 함을 천명하고 우리 대학에서 여학우들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대응 해야함은 우리의 사명임을 선포한다.

공개토론회 내용은 스포츠 신문을 추방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를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하고 학우들의 주장과 반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틀을 가질 것입니다.

둘째날과 셋째날은 스포츠 신문 추방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벌여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의 신문의 스포츠란을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스포츠신문을 만들게 된 것은 서울올림픽을 3년 앞둔 85년 서울신문사의 『스포츠신문』에서 부터이다. 이는 5공정권하에서 이른바 3S(Sex, Screen, Sports)를 수단으로 황색 이데올로기정책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프로야구 출범을 두고 광적인 스포츠 몰랑공세 정책을 펼친다.

스포츠신문은 대중매체가 갖는 기본적인 지배이데올로기의 앵무새 노릇을 충실히 할 뿐만아니라 퇴폐, 선정적인 연예 만화로 건전한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스포츠신문은 독버섯이 아닐 수 없다. 정신적 형태의 폭력적인 폭력은 육체적 폭력의 뿌리로서 청소년뿐만아니라 청년에서 장년의 남자들에게 성적폭력을 유발하게 된다.

성적 폭력이 두려워 여자끼리는 여행도 못하고 혼자 집에 있을때 두려움을 느끼고 밤늦게 극장이나 공원에도 제대로 못가게 된다. 여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할머니가 될 때까지 두려움과 몸조심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불편함은 모두 부당한 피해이며 이것 자체를 사회가 책임져야할 부분임은 확실하다.

여성주간내에 단대 여학생부에서 스포츠신문 추방운동과 함께 일일찻집을 준비하고 있다.

일일찻집을 해서 성상품화 추방 운동기금을 마련하여 단대에서 유용할 수 있겠다. 찻집에서는 두레방에서 만드는 빵을 판매할 계획이다.두레방은 기지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86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서 선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총 취업인구중 3차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40%를 차지하고 15세에서 30세까지의 여성중 1/6에 해당하는 여성이 매춘및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이는 여성의 취업직종이 제한되어있고 사회적 보장이 열악하여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노동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우리학교에서 주문하여 판매할 빵은 고연령의 매춘여성들이 전업하여 빵만드는 일을 통하여 생산과 창조의 노동속에서 진정한 일의 의미를 알고 "두레방"의 운영기금마련을 위하여 만드는 빵이다.

두레방을 알려 나가고 매춘여성의 실태를 알아나감과 동시에 매춘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겠다.

마지막으로 대학내에서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반여성적 언어행위와 문화들을 일소하고 보다 건강하고 전정한 대학문화창조를 위하여 여학생 스스로 일어서는 뜻에서 여성주간총화집회와 대동놀이를 기획하고 있다.

대학문화에서 여대생문화라는 부분은 존재하는가?

언제부터인가 인공의 색조로 얼굴을 꾸미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여 화장을 한 사람이 오히려 무례한으로 몰리기 예사이고 지성인 이기에 앞서 예쁜 여대생이길만을 생각하지 않는가?

또한 여성을 싫어하지는 않는가 여자들은 말이 많고 소심하고 질투심이 강하고 등등.. 여자대학은 우습고 여학생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 가엽지는 않은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여학생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일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마치 천부적으로 그런 것처럼. 여성의 열등성은 결코 부끄러울 문제가 못 된다.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과 지위의 열락함이지 결코 천부적인 것이 아니다. 뿌리깊게 사회화되어온 여성다움에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남녀 모두의 열등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존의 여성다움이 너무 나약하지 않은가하는 것이다.

진정 남녀 평등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학우 스스로 학교에서부터 주인이 되어야 한다.

대학문화에서 여대생 문화의 창조자로남녀 공동체 삶의 창조자로 우리는 분명 우뚝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믿을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

4.19를 맞이하는 청년여학도.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미제 최류탄이 눈앞에 박힌채 떠오른 김 주열군의 참혹한 시체 앞에서 살인. 협잡 선거 반대와 민족 통일의 구호는 물결치기 시작했다.

4대 대통령, 5대 부통령 선거를 치루는 과정 속에서 70억원의 선거자금을 뿌려대고 학생들이 야당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일요일까지 등교를 시키는 등의 온갖 사

기협잡이 이루어졌다. 이에 반기를 든 고등학생들이 밀물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막아서는 경찰과 피의 충돌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속에서 이승만 독재정권은 기막히게도 개표결과를 80%의 지지도로 조작발표하여 이승만과 이기붕이 권좌를 차지하고 말았다. 이날이 치욕스러운 1960년 3월 15일의 사기협잡선거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경찰의 무지막지한 탄압 속에서도 죽음으로 맞서면서 규탄시위를 벌여나갔다. 김주열 군의 죽음은 이 투쟁에 뇌간의 역할을 하였고 4월 19일은 '피의 화요일'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은 참혹한 유혈과 죽음으로 얼룩진 날이 되었다. 그리하여 피와 죽음 위에서 꽃피는 민주주의 열매는 4월 26일 아침 7시 이승만 독재정권의 끝을 보고야 말았다. 이후 해방의 열기와 함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내건 민족통일 투쟁까지 번져 갔으나, 미국은 다시한번 5.16 군사쿠데타로 더 혹독한 군사독재정치를 강행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4.19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우리의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이 미완의 혁명, 4.19혁명은 대학교수에서부터 거리의 청소부까지 전국민적인 항쟁이었으나 지속적이고 올바르게 지도할 조직의 부재로 미완에 그치고 만것이다. 그 과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다. 그것은 이땅 한반도가 아직도 갈라져 있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내세워 한국민중을 약탈했던 미국이 지금도 한반도에서 그 약탈을 계속하고 있고 투쟁 과정 속에서 제 2, 제 3의 김주열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고 따를 강력한 조직이 있고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존재를 꿰뚫어 보고있다. 1991년 승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애국청년여학생들은 4.19혁명 31주년을 맞아 시대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나서 우리들의 학생회를 더욱 튼튼히하고 아직도 이땅 한반도의 악의 근원으로 남아있는 미국과 그의 하수인 노태우정권을 몰아내는 투쟁에 과감하게 일어서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4.19 계승주간에 있을 '4.19혁명정신 계승 마라톤대회(4월 18일)'에 참가할 것과 4월 19일 투쟁에 동참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이다.

4.19 계승주간 일정

- 16일 서노문협 노래공연
- 17일 북한영화 상영
- 18일 마라톤 대회
- 19일 4.19혁명 계승 집회

여학생부(회) 활동의 원칙과 방도

각종 여학우 소모임과 과여학생부, 단대 여학생부가 왕산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세움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쓰고자하는 것은 평소 느끼고 있던 여학생부(회) 활동의 자리매김을 위한 의견을 정리하여 이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과여학생부(회)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겠습니다.

먼저 과여학생부(회)는 과내의 여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해서 과 전체 여학생들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여학우 스스로 자신의 운명의 주인으로 서기 위한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종종 여학생부 활동이 활발히 되지 않아 낙심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나 집안에서의 봉건적 규제와 20여년의 교육과 남성중심의 사회적 통념에 길들여진 여학우들이 단숨에 낡은 관습을 벗어 버릴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 여학생부 활동을 편협한 일로 바라본다거나 선뜻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은 여성차별의 역사가 유구한 만큼 그 골이 깊이 패어있다는 것입니다. 단숨에 깨어나가기 힘든 부분임을 서로 인정하면서 무엇을 만들어 대접한다기 보다는 서로 고민하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한다는 선구자적 자세와 겸손한 자세로 활동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야 한다.

과 여학생부는 과 여학우대중들의 자주성에 근거한 부서입니다. 여학우대중들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사업이어야만 그것이 힘을 가질 수 있고 그 사업의 주체가 여학우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적, 실천적 결합을 이루어내자.

여학생부장은 항상적으로 여학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여학우대중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첫번째 원칙도 강고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것도 철저히 준비한다.

여학생부의 이름을 걸고는 있지만 아직은 많은 일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비한 활동 속에서 벌이는 여학생부 사업은 많은 학우들의 관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업은 무성의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의 여학생부 활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명심합시다.

넷째, 활발적인 태도로 임한다.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책으로 차별받는 여성들처럼 과내에서도 여학생부 활동은 하나하나하고 보고도 잘안되고 별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는 학우도 있는데 막상 여학생부 활동의 주체자들이 힘없고 자신감이 없어야하면 더더욱 안될것이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여성이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희망에 차서 사업을 전개합시다.

다섯째, 어머니와 같이!!

그 어떠한 모습도 이해, 포용하면서 전체 여학우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작고 사소한 일일수록 세심하게 함께 고민해주고 안아주어야 한다.

이런 다섯가지 원칙속에서 여학생들을 한 가슴에 품어 안고 활동을 당차게, 통크게 전개하여 보자.